

내달 개막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온 힘'

NEWS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도·시군 합동 준비상황보고회...대회 운영 등 점검 김영록 지사 "안전 최우선...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

전남도와 시군이 오는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남에서 개최되는 전국 최대규모 생활체육 대회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개최에 전력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25일 도청 서재발실에서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경찰청, 전남도체육회, 12개 시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도-시군 합동 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선 올해 대축전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한 안전 대책부터, 숙박·식품, 교통·수송, 의료, 환경, 대회 운영까지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구제역 대응 상황과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전남도는 경기장 주변 방역에 힘쓰는 한편, 축

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체 경기장을 모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축전이 개최되는 57개 전 경기장은 시설·전기·가스·소방 등 안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현재 보완조치를 진행 중이다. 12개 시군, 16개 경기장에 대한 개보수도 4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대축전 종료 후에는 해당 시설을 생활체육과 전지훈련 등 다양한 용도로 지속해서 활용할 방침이다.

대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은 4월 25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OK! Now Jeonnam, 활기 UP 생활체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박지현, 린, 트리플에스, 황윤성의 공연으로 모두가 즐기는 축제로 치를 예정이다.

4월 26일에는 주 개최지 목포에서 선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5일 도청 서재발실에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도-시군 합동 준비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단 맞이 해상W쇼 특별공연이 진행되며, 화순 고인돌 불꽃축제, 함평 나비축제, 신안 1004 피아노쇼 축제 등 다양한 지역 문

화행사를 개최해 대축전의 시너지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손님맞이를 위한 핵심

요소인 숙박·식품 분야의 물가 안정 캠페인과 친절·위생 교육을 진행했다. 또 선수단과 방문객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회 기간 중 숙박·식품업소 종합안내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지난 2년간 체전 성공개최 주역이었던 자원봉사단 1050여명과 도민지원단 5000여명도 마지막 준비를 하며 선수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체육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성공적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겠다"며 "마지막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대회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3년 전국(장애인) 체전과 2024년 전국소년(장애학생)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역대 최대규모 6만명(2023년 4만명·2024년 2만명)의 선수단을 맞이했다. 생산·부가가치 유발 2601억원(2023년 1952억원·2024년 649억원), 취업유발 1977명(2023년 1478명·2024년 499명)의 효과를 기록하며 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임을 입증했다. 박정렬 기자 hohul@

전남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든다

24시 돌봄어린이집·외국인 보육료 지원 등 돌봄 대폭 확대

전남도가 지난해 9년 만에 이룬 출생률 반등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저출생률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03명(전국 평균 0.75명)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출생아 수는 8226명으로 전년(7828명)보다 398명(5.1%) 늘면서 9년 만에 상승 반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전남도는 2025년 출생률 반등 기조를 이어가며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등 양육돌봄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2개소를 지정, 운영한다.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부모가 어린이집 정규시간 외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아이돌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남도는 3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 330여 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 외국인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 안정적 전남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돌봄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에도 적극 나선다.

2025년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아동 결식 예방에 힘쓰고, 질 높은 급식 제공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전남도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

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2024년까지 모든 시군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설치를 완료해 돌봄 사각지대 공백을 없앴다. 올해는 더 많은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중위 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 사회적 돌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출생률 상승 기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시, 난임부부 한방치료 최대 124만원 지원

광주시는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방 난임치료 대상자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난임 여성으로, 마지막 보조생식술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 난임부부에게 3개월간 한방치

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한약 및 검사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24만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광주시한 의사회(062-223-9481)에 문의한 후 난임 진단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의사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지정된 한방 병·의원에서 3개월 간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광주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을 다음달 11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등 2개 분야로,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따라 단계당 최대 1000만원까지 총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지역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대학교 연구소 등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광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해 4월11일까지 여성가족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choc1@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062-613-2274)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심사위원회에서 단체 사업수행 역량, 사업내용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예산의 적정성 등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4월 중 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진이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고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할인가맹점 홍보 남도장터 등 592곳...관광활성화·농특산물 판매 촉진 기대

전남도가 관광 활성화, 농특산물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할인가맹점이 592개소를 돌파한 가운데 본격적인 할인가맹점 홍보 지원에 나섰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현재 56만 명을 넘어섰다. 전남지역 관광지, 숙박, 음식점, 전통시장 등 할인가맹점 할인가맹점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1만 원 할인, 전남관광플랫폼 JN투어 남도속박 1만 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전남도는 이러한 할인가맹점에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SNS와 방송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홍보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활용, 여수·장흥 대표 할인가맹점 소개 영상을 제작한 결과 이를 만에 무려 6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주 보는 채널에 게재돼 많은 국내외 외국인에게 서포터즈를 알리고 할인가맹점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지상파방송의 '생생 3D', '모닝와이드' 등을 활용해 목표, 나주, 진도 등 대표 할인가맹점을 소개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강경문 전남도 고항사랑과장은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해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부터 혜택까지 정보를 쉽게 습득하도록 유용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라며 "특히 권역별 할인가맹점 투어 콘텐츠 제작 등 할인가맹점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 및 지역별·종류별 할인가맹점 내역은 전남 사랑에 100만 서포터즈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곡성 모들러 주택단지 / 휴인 설계·시공

휴인주식회사 HUIN Co.,Ltd

공학목재(구조용 집성목재) 제조·공급하는 지역기업입니다.

- 목조건축 상담 및 설계지원
- 건축구조재(CLT) 신기술 인증 보유 기업
- 내화구조 1시간, 2시간 인증
- 구조용 집성목재 생산·시공(KS인증 보유)

국내 KS 인증서 (구조용집성목재)

국내 신기술 인증서 (합판교의 CLT)

내화구조 인증서 (기둥, 벽체, 바닥)

집성목재 생산 및 남풍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골조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설계지원 및 시공

문의 및 상담 Tel. 061-271-5777 / 062-945-0036~7 www.huin.kr